

산업혁신 기반구축에 2685억 투입 AI전환 설비·연구기반센터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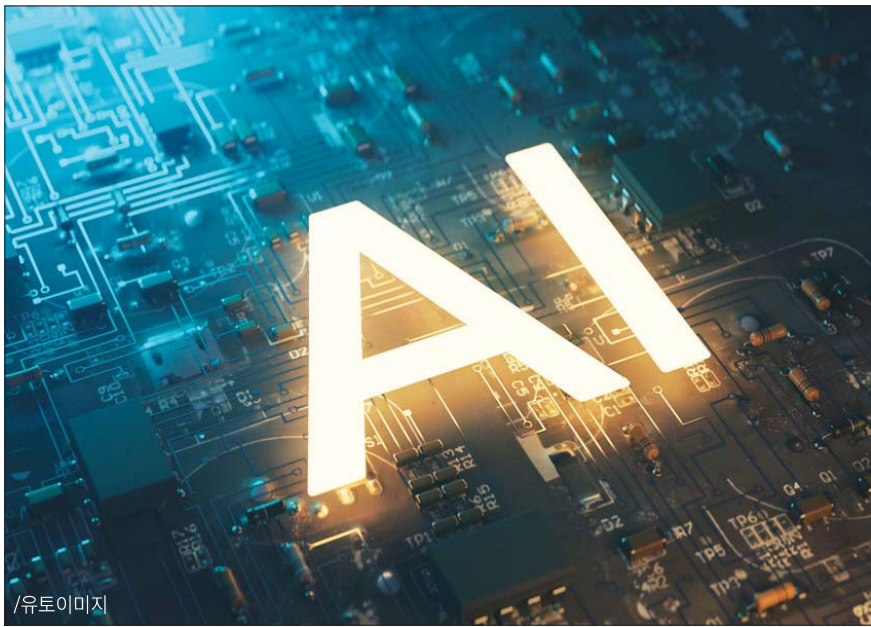
산업부, 올해 28개 신규과제 선정
AI기반 제조혁신 인프라 대폭 확대
제조 AI전환 장비·시설집중 구축
AI·반도체·이차전지 중심 과제 추진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의무화 적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과 초격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자금을 투자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기업 단독으로 구축하기 힘든 연구·실증 인프라를 공공 기반으로 확충해 산업 전반의 기술 자립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시험·평가, 인증, 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5% 늘어난 규모로, 2022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증액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하며, 이 중 약 40%를 AI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해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연 공유형 연구공간’ 구축을 의무화한다. 전국 각지 연구기반센터 내



에 공유형 연구공간을 조성해 앵커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실증에 참여하도록 하고,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연구기반센터가 단순 장비 제공을 넘어 ‘산업기술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조성된 연구기반센터는 2025년 기준 전국 286개다.

이와 함께 ▲연구장비 공동활용 실적 이 우수한 자립과 센터의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연구기반고도화형 기반구축’, ▲가상 실험과 자율 실험을 통해 실험 계획부터 결

과 도출까지 지원하는 ‘AI 자율실�험실형 기반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고는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 공고는 1월 27일 9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AI 대전환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연구 시설·장비의 선제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인프라를 통해 기업 현장의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미령 “수라학교로 한식교육 확대”

농식품부, 한식교육기관 설립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K-푸드의 위상이 격상된 상황을 기회로 ‘한식 교육’ 확대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송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식진흥원에서 유명 조리장들과 만나 이른바 ‘수라학교’의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한식교육기관) 수라 학교를 통해, 한식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식문화 장르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한식과 K-푸드 위상이 높아진 지금이 한식 교육을 확대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K-푸드 및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염

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왔다. 이에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달 2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세부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특히, 해외 한식 전파 및 K-푸드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올 하반기 수라학교 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리장·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현장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프리미엄 수라학교’를 설립해 소수 정예 대상의 고품질 교육을 추진한다. 세계 미식 시장을 선도할 한식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설 맞아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

농식품·영농자재·유류 동시 할인

농협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심!천심!동심!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농협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 최초로 농식품과 영농자재, 유류를 동시에 할인 판매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농협이 준비한 510억 원은 자체예산 362억 원과 정부지원 135억 원, 자조금 13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존 설 특판행사를 비롯

해 물가안정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이날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설 성수품목 수급상황과 판매동향을 점검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성수품목(사과, 배, 한우 등) 및 물가안정 품목(배추·계란·라면·참기름 등)을 기간에 따라 최대 65% 할인하며 NH싱싱물(농협물)은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아울러 NH-OIL 주유소에 난방용 등유를 리터당 30원 할인 공급하고, 농협자재판매장에는 영농자재를 최대 30% 할인 공급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동시에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새만금 조력발전 실행계획 수립 ‘첫발’

농어촌공사, 기본구상 용역 입찰 공고
편익·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검토
수질개선·치수효과·운영방안 도출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새만금 조력발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적정 수문규모 및 최적의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이 용역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한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의 후

속 조치다.

공사는 이번 입찰을 통해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렀던 새만금 수문 증설·조력발전 사업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새만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유력한 조력발전 후보지로 꼽혀왔으나 경제성 확보 등이 선결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사는 용역을 통해 조력발전 도입 시 예상되는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효과를 분석하고, 수문 및 발전시설의 최적 규모와 운영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용역에 선정되는 수행사가 맡는 과제

는 ▲조력발전에서 발생하는 편익 및 경제성 분석 ▲새만금 유역 전반의 지형·수질·수문 등 조사 및 분석 ▲수질 개선 효과와 주요 생물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문·수차 최적 규모와 조력발전 방식 검토 ▲새만금 RE100 산단 연계성 분석 ▲전력 계통 연계 방안과 재생에너지 정책 부합성 검토 ▲수문 및 조력발전 시설 최적 운영 및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공사는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와 가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3월 중 계약을 체결해 과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중관계 복원”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략적’ 경제협력력을 거론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통상 교류를 복원하는 등 지정학적 갈등에 유연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양상의 지정학적 갈등이 국제경

제 질서 전반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 조치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 지속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적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위기 관리 역량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

요하다”며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K-컬처 등 우리 강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9년 만의 국빈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콘텐츠·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방글라데시 CEPA 협상 진전 ‘속도’

산업부, 서남아 진출 교두보 기대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월 26일 ~ 29일까지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한·방글라데시 CEPA 2차 협상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손호영 산업부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과 아예샤이크터방글라데시상공부대외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대표단 약 60명이 참석한다. 협상은 상품 양허, 서비스,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13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양국은 지난 2024년 11월 CEP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2025년 8월 열린 1차 협상에서 협정문 전반에 대한 기본 입장

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을 확인했다. 이번 2차 협상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 쟁점에 대한 심화 논의와 입장차 해소에 집중해 협상 진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유망 신흥시장과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이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서남아 핵심 시장으로, CEPA 체결 시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호영 총괄과장은 “방글라데시와의 CEP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